

간척(갯벌)사업

간척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계속 추진 필요 갯벌보다 농지가치가 훨씬 더 크다



구 요 한
(농업기반공사 기반조성사업처장)

한국 간척사업 13C 청천강하구가 효시

우리나라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클 뿐 아니라 경사가 완만하여 간척지로서 최적의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농림부 조사에 의하면 남한에 67만7천ha, 북한에 25만ha의 간척자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남한 경지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2/3가 산지이므로 가용면적이 상대적으로 매우 좁아 인구 1인당 0.14ha에 불과하여 화란 0.24ha, 영국 0.38ha, 프랑스 0.69ha, 미국 2.43ha와 비교해 보면 매우 협소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풍부한 갯벌 자원을 갖고 있으며 리아스식 해안으로 간척

에 매우 유리하다. 또한 연안 일대에는 토석을 구하기 쉬운 산이 많아 간척사업에 아주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방어나 식량생산을 목적으로 방조제를 축조하여 왔으며 서해안의 넓은 농경지는 상당 부분이 간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간척은 13세기 몽고 재침 때 청천강하구 갈대섬에 제방을 축조하고 내부에 농지를 조성하여 경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 후 고려, 조선시대에 강화, 김포 등지에서 간척사업을 시행한 기록이 있다. 일제시대 이후 농지확대를 위한 간척사업을 활발하게 실시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농업생산기반 확충, 1970년대 이후에는 농업종합개발 차원의 대단위 및 서남해안 간척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92년 이후에는 국토종합개발방식으로 간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요즘 갯벌의 보존과 개발은 장안의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즉 남아 있는 갯벌을 자연상태로 보존할 것인가? 개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다. 필자는 간척사업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는 좁은 국토에서 높은 인구밀도를 갖고 살아가는 어려운 현실이므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미래 세대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는 간척사업을 계속하여 농지와 수자원을 확보하고, 생명산업인 농업을 살려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과정에서 생태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적용하고, 영농시에도 생명동태농법(Biodynamic farming method)과 같은 지속농업을 실시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다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간척의 필요성과 개발현황 및 효과, 외국에서의 간척 사례를 살펴보고 갯벌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바람직한 개발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간척사업의 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지로 경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다 매년 약 2만여ha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됨으로써 식량 생산량이 줄고 있고, UN, FAO 등 국제기구에서는 21세기 세계식량위기를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쌀 생산을 위해 논 면적을 최소한 1백10만ha로 유지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국제 곡물파동에 대비하고 계속 줄어드는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토지를 창출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간척 사업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인구의 약 1/130인데 반하여 농경지 면적은 세계 농지의 약 1/776에 불과하여, 1인당 1백27평에서 식량, 채소, 과일, 약용 및 섬유재 등 농작물을 생산해야 하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다.

더구나 최근 인간지놈(genome)정보가 공개되어 의학 분야의 혁명적인 발전이 기대됨에 따라 인간 수명의 연장 과 폭발적인 증가는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증가하는 인구의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토지와 물이 필요하므로, 좁은 국토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존과 직결되는 물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간척사업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이상기후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세계의 곡물 생산량이 1% 감소할 경우, 가격은 47% 폭등할 정도로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이 국제 곡물시장의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원이다. 물은 인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자원인데 우리나라는 연간 1인당 이용 가능한 물의 양(AWR: available water resources)이 1천4백76m³에 불과한 물 부족국가에 속한다. 이처럼 수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하구 또는 연안에 만들어진 담수호는 바다로 흘러 버리는 물을 저장하여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활

용할 수 있으므로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우리 후손들에게 굶주림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으려면 서해안에 잘 발달되어 있는 갯벌을 간척농지로 조성하여 식량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담수호를 조성하여 물을 확보해야 한다. 간척농지 조성은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간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간척사업을 하면 갯벌이 모두 죽어 없어지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오염이 심한 연안 해역의 갯벌은 농지로 다시 태어나고 방조제 외측에는 새로운 갯벌과 어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간척사업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아산만, 금강 하구 등 70년 이후 축조된 방조제 외측에 새로 형성된 갯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간척사업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머지않아 닥쳐올 통일에 대비하여 식량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척사업은 환경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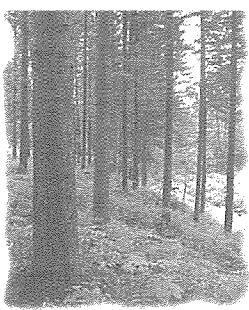
강화도는 전체 1/3이 간척으로 조성

강화도는 전체 면적의 1/3 정도가 간척으로 만들어진 섬으로 유명하다. 20세기 들어 지금까지 완성된 간척지는 해방전 간척면적 4만ha를 포함하여 약 11만6천ha이며 개발중인 면적을 합하

여 약 17만6천ha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척농지 개발목표 면적은 70년대 40만2천ha이었으나 95년 12월 20만8천ha로 조정되었고, 98년 12월 5개 대규모 간척예정지구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총 간척 목표면적을 15만7천ha로 재조정하였다. 해방 후 99년까지 개발 완료된 면적은 약 7만6천ha, 현재 개발중인 간척 농지는 6만ha, 향후 간척 계획면적은 2만1천ha이다. 간척사업은 갯벌을 매립하여 농지, 산업용지 등을 조성하는 단순한 매립사업이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발전에 필요한 토지, 식량, 수자원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국토 종합개발사업이다. 따라서 간척사업을 통하여 식량생산 뿐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 수자원 확보, 한발 및 침수 피해 감소, 교통여건 개선, 관광 및 휴양지 제공, 지역의 균형개발, 고용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에 공사로 인한 어장 등 수산업부문의 손실, 방조제 건설에 소요되는 토석채취로 산림, 농지 등 자연환경의 변화, 담수호내 수질오염 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간척사업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은

간척사업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는 첫째, 토지 및 식량생산기반의 조성을 들 수 있다. 20세기 이후 조성된 간척농지는 현재 시행중인 지구를 포함하여 17만6천ha로써 총 경지면적 1백89만9천ha의 9%를 차지하며, 이들 간척농지에서 약 88만2천톤의 쌀이 생산된다. 이는 99년도 우리나라 쌀



특집 국토 개발 문제있다

생산량 5백26만톤의 약 16.7%로 식량 수급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곡물자급률이 30%에 불과한 우리의 현실에서 주곡자급이 IMF 경제위기 극복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는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는가?

둘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자원이면서도 그 중요성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 수자원의 확보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9%에 불과한 물 부족국가에 속하므로 물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담수호는 바다로 흘러 버리는 물을 저류하여 물 부족이 심한 서남해안 연안지역에 농업용수 및 생·공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는데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서남해안 9개 주요 담수호의 저수능력은 11억³로써 내륙의 1만8천개 농업용 저수지의 유효 저수량 24억³의 46%에 달하여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

셋째, 홍수조절과 기존농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담수호는 상습적인 가뭄에 시달려 왔던 배후 지역의 농경지를 물 걱정 없는 옥토로 만들며, 홍수기에 바닷물의 역류를 막아 침수피해, 염해, 시설

물피해를 해소시킨다. 실제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성되면, 담수호 인근농지 1만2천ha가 상습적인 수해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서남해안에 산재한 9개 주요 담수호 용량은 9억7천만³로써 대규모 다목적댐의 홍수조절 효과보다 크다.

넷째, 교통여건 개선으로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굴곡이 심하고 교통망이 정비되지 않아 양안을 따라 먼 길을 돌아다니는 불편이 있는데, 방조제를 따라 도로가 연결되어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1998년 아산·삼교·금강·영산·영암 등 5개 방조제의 교통량은 3백50만대를 넘으며, 경제효과는 연간 1천3백90억원 정도로 평가되었다. 이밖에 관광 및 휴양기능, 고용창출효과, 녹지공간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의 효과가 있다. 간척사업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첫째, 수산업부문의 손실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천혜의 간척지원의 보고이면서 수산업 측면에서도 훌륭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지역은 영양염류가 풍부하여 양식어업의 적지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간척사업은 이러한 수산업의 자연적 특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연환경의 변화이다. 간척사업은 방조제축조, 개담공사 등 다양한 공사를 수반하므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셋째, 담수호의 수질오염문제이다. 담수호는 수계의 말단에 위치하므로 상류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호수 내에서 물의 흐름이 느려져 정화능력이 떨어지므로 수질오염문제가 야기되기 쉽다. 따라서 상류의 오수처리시설과 담수호에서의 정화시설 등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외국에서는 간척을 얼마나 했나

바다를 막아 새 땅을 만들어 농지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사례는 외국의 경우 영국, 네덜란드,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로 수백년 전부터 간척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특히 네덜란드는 국토의 1/3 이상이 간척지로서, 간척은 국토 확장의 상징으로 알려진 나라이다. 네덜란드의 주다지 간척지구는 1백만 ha의 지형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20세기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간척사업으로서,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사업은 ①국민의 생존을 위한 식량자급, ②폭풍·해일로부터 국토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목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당초의 목적 외에도 네덜란드

〈표 1〉 간척농지개발사업 현황 (단위 : ha)

구분	개발목표면적	'47~'99까지 준공	시행중	개발예정지	비고
계	156,666	75,738	59,854	21,074	해방전개발 40,877
○정부시행	116,477	35,549	59,854	21,074	
-대단위	55,665	14,865	40,800	-	
-서남해안	60,812	20,684	19,054	21,074	
○민간시행	40,189	40,189	-	-	

의 서북부 지방의 발전을 크게 앞당겼다. 이 사업으로 이전 백년 동안 공급한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주택지를 공급하였고, 다양한 위락·휴양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자연 보전과 경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주다지 간척지와 담수호 주변지역에 매년 5백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관광수입만도 연간 10억달러에 이른다. 선진 외국의 간척현황을 살펴보면, 네덜란드는 전체 갯벌 74만ha중 69만6천ha(94%)를 개발하였고, 영국은 26만5천ha중 22만5천ha(85%)를 개발하였으며, 일본은 30만ha중 26만7천ha(89%)를 이미 개발하여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네덜란드는 6%, 영국 15%, 일본은 11% 정도의 갯벌만을 남겨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갯벌면적 40만2천ha중 시행중인 지구를 포함하여 13만5천ha(33%)를 개발하고 67%의 갯벌이 남아 있다.

역 간척 사례는 없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역 간척은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 방조제를 허물어서 담수호를 바다로 바꾸고 간척농지를 다시 갯벌로 되돌린 사례는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역 간척 사례로 인용되고 있는 네덜란드의 블라우에카머 지구와 밀링어바드 지구는 내륙 저지대 하천변의 상습침수 농지 일부(1백50ha)지역의 하천 제방을 헐고 침수 농지를 저류지로 만들어 홍수 피해를 막고 그 곳에 조성된 습지를 자연보전지구로 지정 관리한 것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



농지와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대호지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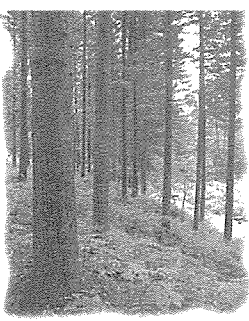
간척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한 우량 농지 확보이다. 간척사업은 육지와 해양이 접하는 공유수면을 개발하므로 환경변화를 피할 수 없지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방향을 정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간척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방조제 공사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에서 분석한 사항을 반영하고, 경사면 및 주변해역의 생물의 생육장 역할을 하는 환경사방조제, 담수와 바다를 이동하며 사는 화유성 어종의 이동통로를 제공하는 어도를 설치함으로써 환경변화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담수호에는 습지식물이 자생하여 수질정화 및 생물의 서식처 기능을 하

는 인공습지 조성, 담수호 내에 수초 저류지 조성, 제염축진을 위한 외부유입수 도입시설, 수질개선을 위한 폭기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상류에서는 오수를 잘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목표수질을 유지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간척농지는 최대한 현 지형을 보존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직선화된 배수로보다는 원지형을 이용하여 자연형 수로 및 침전지를 조성함으로써 생태계 변화를 최소화하고 수질 및 토양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각종 동식물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도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어린이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간척농지에서의 영농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유기농법, 오리농법 등 생명동태농법(Biodynamic farming method)으로 운영하는 대규모 환경농업단지로 육성해 나가야 한



특집 국토 개발 문제있다

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간척사업을 추진하여 대규모 청정우량농지와 깨끗한 담수호, 인공습지, 생태공원을 조성하므로써 21세기 식량 및 물 부족에 대비하고 인근지역과 연계한 휴양 관광지를 조성하고, 친환경농법을 적용하므로써 미래세대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공간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3세기에 간척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조성된 간척농지는 우리의 식량수급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간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①갯벌의 개발로 인한 생태계 변화 ② 담수호의 수질오염문제 ③미래세대의 환경권 ④ 잘못 평가된 갯벌가치 등이다. 이와 같은 쟁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간척 후 새갯벌 생성, 생태계 복원

우리나라 서해연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하천의 대부분이 서해로 유입되고, 중국대륙에서 공급되는 퇴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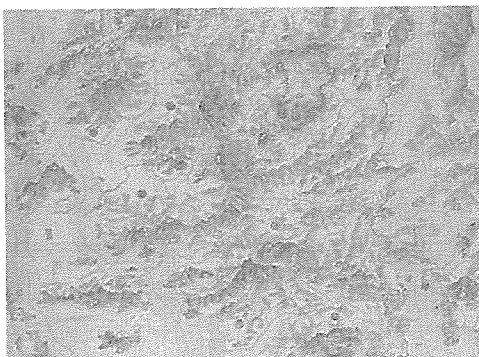
이 풍부하여 간척사업 후에 새로운 갯벌이 지속적으로 생성된다. 최근에 개발한 서해안 간척지 내측에는 더 오래 전에 축조된 방조제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간척사업 이후 외측에 새로운 갯벌이 형성된 것이며, 이와 같은 사례는 강화도, 김제, 옥구 등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간척사업 후 새로운 갯벌이 생성된 주요 사례를 들면 새만금지구, 아산·삼포천·남양방조제, 금강하구둑이며, 강화도에서는 13세기 간척이 처음 시작된 후 지금까지 축조된 방조제의 총 길이는 1백km 이상으로 2~3중으로 축조된 곳이 많다. 강화도는 19세기 말에 두개의 섬이었으나, 퇴적된 갯벌을 막아 간척을 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게된 것이다. 간척사업 후 담수호와 간척농지에는 다른 종류의 조류 생태계가 조성되고 갯벌에 도래하던 도요류의 철새는 먹이가 풍부한 인근 갯벌로 이동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담수호의 수질오염 원인은 근본적으로 상류지역의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유입되는데 원인이 있다. 상류에서 오염원을 제거하여 담수호의 수질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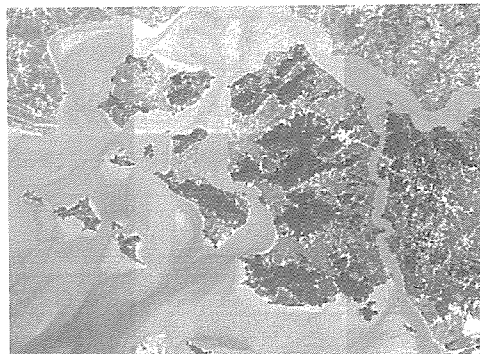
선한 사례는 네덜란드와 일본 등 선진국에서 많이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라인강 지역의 공업화로 담수호가 오염되었으나 인접국가와 공동 노력하여 수질을 개선하였으며, 현재는 인근 지역의 식수와 산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시화호나 새만금호의 수질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 상류에서 처리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간척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오수는 처리하여 하류로 내보내야 연안해역의 갯벌을 살릴 수 있다. 따라서 상류에서 오수를 엄격하게 처리하고, 담수호내에는 인공습지, 폭기시설 등을 설치하여 목표수질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미래 세대에겐 필요한 삶의 터전을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겐 주어진 책임이다. 요즘 갯벌을 개발하지 말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갯벌보존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먹지 않고



1870년대의 강화도 남부



현재의 강화도 남부

<1870년대 2개 섬 사이의 갯벌은 현재 농지로 변하고 주변에 강화갯벌이 생성됨>

는 살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곡물의 30% 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미래 세대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양식을 생산할 수 있는 비옥한 농토와 깨끗하고 충분한 양의 수자원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 또한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더욱 중요한 책무이다. 우리 후대들의 생존권은 환경권보다도 우선하여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보다 환경이 덜 오염된 곳에서 살고 있지만 식량부족으로 영양결핍, 기아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사례는 우리의 가슴을 멍들게 하지 않는가? 눈은 고대로부터 우리와 뉘 수 없는 중요한 삶의 현상이었다.

논과 갯벌의 경제적 가치

논은 주곡인 쌀을 생산하는 터전이며, 홍수를 방지하고 수질과 대기를 정화한다. 특히 논은 수질정화 기능은 갯벌보다 우수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민물을 정화한다는 면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방조제와 담수호는 해일이나 홍수를 방지해 주고, 많은 수자원을 확보하며, 논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휴식공간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기능을 모두 고려하면 논은 갯벌에 비해 2.6배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은 가치 중에서도 쌀 생산을 제외한 것들은 사고 팔 수 없는 가치로, 공익적 기능 또는 생태적

〈표 2〉 갯벌과 농지의 경제적 가치 비교

구분	세종대	중앙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한국 해양연구소
책임연구자	주명건교수	최재선교수	김용갑부원장	이흥동박사
발표시기	'99. 12	'99. 11	'98. 7	'96. 12
경제가치	농지가 2.6배 높음	농지가 1.4배 높음	농지가 1.85배 높음	갯벌이 3.3배 높음

기능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식량안보, 주곡자급, 식품의 안전성, 토지자원 확보, 육운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발전 등 간접효과를 포함하면 간척지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커진다. 갯벌과 농지의 가치의 판단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1996년에 국내의 한 연구기관에서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논보다 크다고 분석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 갯벌의 가치는 양식장과 같이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고, 거의 모든 어류가 갯벌에서 알을 낳는 것으로 가정하고, 기타 여러 가지 기능을 고려하여 과대평가 하였으며, 논은 가치의 쌀 생산만 고려하고 논은 저류기능, 수질정화기능, 비의 탄소동화작용에 의한 산소생산기능, 미생물을 포함한 각종 생명체의 서식기능, 식량안보 등의 중요한 기능을 모두 누락시키는 등 가치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앞으로의 간척사업 추진방향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환경산업이다. 간척을 하면 해양생태계인 갯벌은 육지생태계인 농지로 다시 태어나 미래 세대의 생존을 책임질 식량생산기지로 탈바꿈하여 인간에게 더욱 유용한 농업기반으로 활용된다. 또한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수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처럼 중요한 간척사업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굶주림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미구에 닥쳐올 국제적 식량 위기에 대처할 수 없게 할 뿐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하여 식량을 생산할 간척농지의 조성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앞으로 간척사업을 시행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21세기 국민 생존적 차원에서 물과 식량 확보를 위하여 수질보전·생태변화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연안 오염 등으로 갯벌가치가 낮은 지역을 우선하여 중·소규모로 개발하므로써, 환경변화가 적게 하여야 한다. 셋째, 사업 시행 초기부터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의 협조와 이해 속에 경제, 사회, 토목, 환경 등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간척사업이 완료된 후 농업경영은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등과 같은 환경친화적 농법을 적용하므로써 미래 세대에게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공간을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